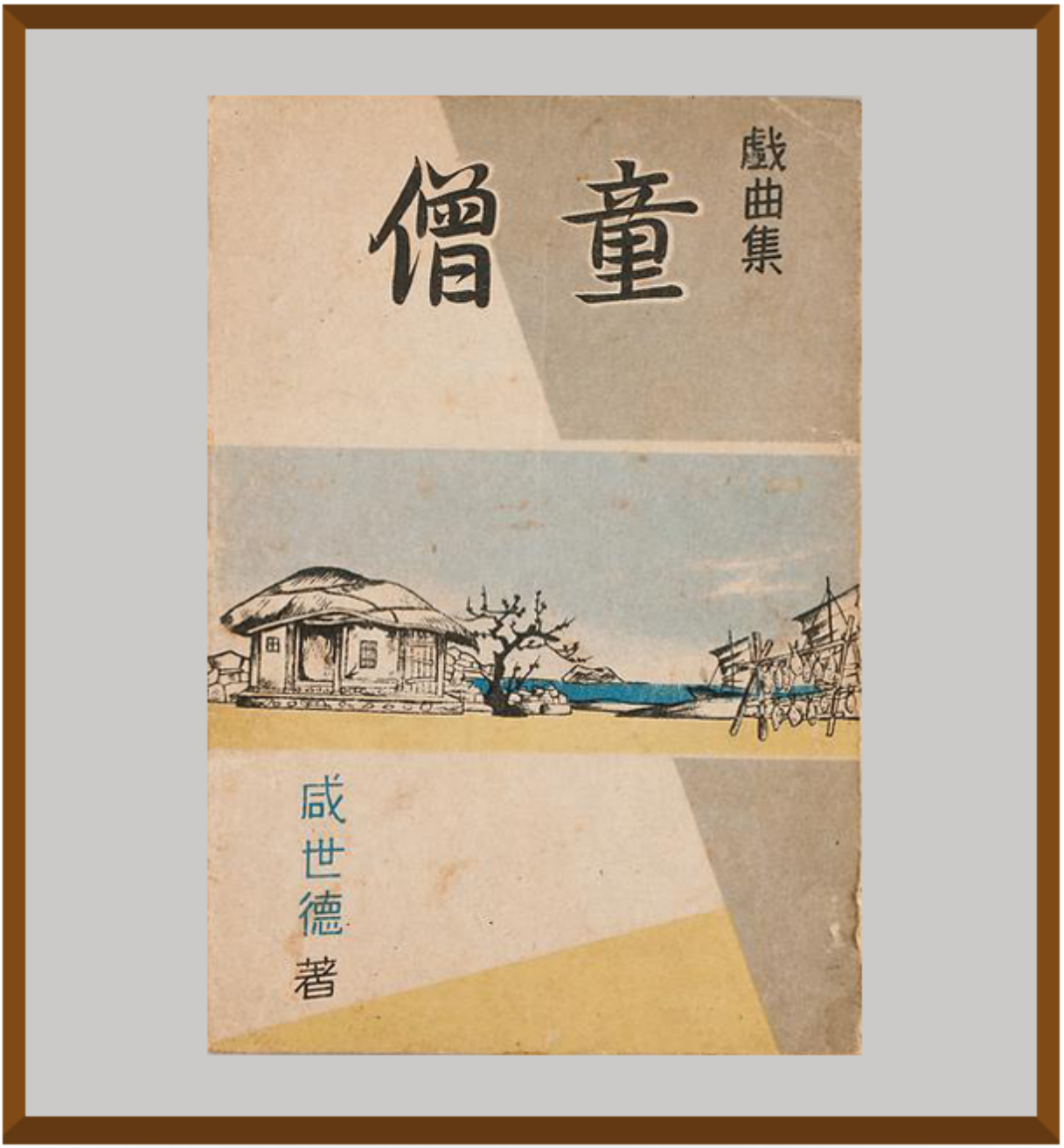

인천이 배출한 함세덕 희곡의 정수(精髓) 함세덕 희곡집 「동승」

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은 전국 유일의 공공 종합문학관입니다. 근대문학을 중심으로 한 근대 한국학 자료 약 3만 점을 소장하고 있는 콘텐츠 중심형 문학관이기도 합니다. 한 달에 두 번, 인천문화통신 3.0을 통해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희귀 자료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자 합니다. 문학관에 직접 오셔서 한국 근대문학이 가진 의미와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

戲曲集
僧童
咸世德 著

인천이 배출한 함세덕 희곡의 정수(精髓)
함세덕 희곡집 「동승」

올해로 탄생 101주년을 맞이한 함세덕은 인천이 배출한 최고의 극작가로 동랑 유치진과 함께 한국 근대 희곡의 양대 거장 중 한 사람이다. 함세덕은 1915년 5월 23일 인천 화평리(현 화평동)에서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인천공립보통학교(현 인천창영초등학교)와 인천상업학교(현 인천고등학교)를 졸업했다. 함세덕의 조부는 인천을 대표하는 상인이었으며, 부친은 인천외국어학교(인천상업학교의 전신, 현 인천고등학교) 출신으로 모교 교사를 지낸 뒤 인천에서 상업 활동에 종사했다.

이 책은 35년의 짧은 생애를 보낸 함세덕의 대표작이자 유일한 작품집이자 희곡집이다. 이 책에는 「동승」과 「무의도기행」을 비롯한 그의 대표 희곡 다섯 편과 게재 작품에 대한 작가의 해설을 담은 '「동승」을 내놓으며'라는 제목의 해제 1편이 실려 있다. 함세덕은 이 책의 글들을 '전시대(前時代)의 유물'이라는 한마디로 정리하는데, 결국 「동승」 발간은 일제강점기 자신의 문학을 결산하고 해방된 조국에서 새로운 작품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작가의 다짐 차원에서 이뤄진 일임을 알 수 있다.

「동승」은 광복 후 해방기의 혼란 속에서 당대 메이저 출판사의 하나인 박문출판사에서 발간되었는데, 이 점만으로도 이 작품집의 중요한 가치를 엿볼 수 있다. 한편, 이 시기 박문출판사에서 발행된 책은 판권지가 거의 없는데, 이 책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도 매우 흥미롭다. 마지막으로, 이 책에 세 번째로 실린 「해연」은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세워진 팔미도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한국근대문학관이 위치한 해안동이 배경으로 언급되는 유일한 근대문학 작품이다.

함태영 / 한국근대문학관 학예사